

2016년
570돌
한글날

온 세상,

정말로

비추다

- 2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4 한글날 기획 외국인인 본 한글
- 5 한글날 기획 올해 한글을 빛낸 분들
- 6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 온 국외 통신원 편지
- 8 길 이름, 알고 보니
- 9 갈무리할 우리말
- 10 통계로 보는 우리말 / 다듬은 우리말 알아보기
- 11 안녕! 우리말
- 12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 15 다양한 행사를 알려 드려요



국립국어원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570돌 한글날을 맞아 많은 분께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송철의 국립국어원장님,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장님께서 한글날 축하 글을 보내 주셨고, 국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나경원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유성엽 의원님과 멋진 작가 강병인 님, 가수 육성재 님도 축하 인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또 한국방송 김재원, 문화방송 하지은, 서울방송 정미선 아나운서께서도 축하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소통의 가치 되새기는 한글날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백일흔 돌 한글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한글은 세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글에 대한 오랜 연구의 결실이 모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원리, 창제 동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의 모습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함으로써 말소리의 원리를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글의 가치를 오늘날 다시 새겨보는 일은 더욱 뜻깊습니다.

말과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문화 발전의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낱말이 흩어진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여러 글자가 모여서 인간의 생각이 담기면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글을 아름답고 바르게 가꾸는 일은 배려와 화합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꽃피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바른 우리말 사용과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언어, 한국수화언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시행된 해입니다. 이는 온 백성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잇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바르고 편리한 우리말을 통해 우리 국민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대한민국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융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570돌을 맞이한 자랑스러운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인 한글은 '애민 정신'이라는 창제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탄생한 지 6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류 바람을 타고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되새기며 한글 창제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는 한글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570돌 한글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글은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창의적인 문자입니다. 우리는 한글이 창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수한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한글 덕택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외래어 등의 남발로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이 점차 잊히고 있어 씁쓸합니다. 2016년 570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 고창군)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입니다. 570돌 한글날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 대학의 매콜리 교수는 한글의 과학성에 깊이 감탄하여 한글날이 제정된 후 매년 주변 학자들을 초청해 한글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에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한글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이대섭

세종 대왕께서 애민 정신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퍼신 지 오백일흔 돌이 되었습니다. 한글날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글 창제의 의의와 한글의 우수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릴 수 있어 뜻깊습니다.

특히 올해 한글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를 비롯한 30만 농인들이 마음 깊이 바라 왔던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형(손의 모양), 수위(손의 위치), 수동(손의 움직임), 수향(손 또는 손바닥의 방향), 체동(얼굴 표정 등 손 이외 다른 표지) 등 총 5가지 수어소(手語素)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수어는 지역의 문화, 개인의 경험 등이 녹아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언어학적, 문화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한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소통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종 대왕의 뜻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맞이한 첫 한글날을 축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1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기반으로 농인의 언어생활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농인의 언어, 한국수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병인 멋글씨 작가

한글은 크고 아름답습니다. 글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세종 대왕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어 꽃이 피어나듯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네 삶과 소리를 키우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글은 바람입니다.

이 큰 한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종의 큰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육성재 가수, 세종학당 홍보 대사

세종학당 홍보 대사,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홍보 대사로 위촉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학당의 홍보 대사로서 한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570돌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글 창제 정신 속에 가꾸는 소통과 존중의 언어문화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지금으로부터 570년 전인 1446년 가을,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익혀서 편리하게 뜻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세종의 바람대로 오늘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글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또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서 늘어남에 따라 한글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드높이고 널리 알리는 발판과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한글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한글에 담긴 과학성과 우수성을 되새겨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글 속에 담은 내용도 또한 돌이켜 볼 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글에 담길 때 비로소 수월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말글을 바르고 편리하게 가꾸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수화언어로도 편리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으로써 세종의 애민과 소통, 실용의 정신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570돌 한글날이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되새기며, 그간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가꾸어 나가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재원 한국방송 아나운서

한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570년입니다. 문화적 도구의 생명력이 이리도 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기쁜 날에 축하보다 감사를 전합니다. 한글 창제를 단행한 세종 대왕께, 또 한글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과연 우리 세대도 후손들에게 한글을 지켜 온 공로로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조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날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아나운서에게 우리말, 우리글은 밥벌이의 도구이자 사명입니다. <6시 내 고향>과 <문화 공감>을 진행하면서 할 말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고향 어르신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또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을 언어로 돕기 위해서지요. 턱없이 부족한 말솜씨지만 목소리를 잃어 가는 기계 소통의 시대에 혹여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말이 꼬이더라도 방송에 서나마 가장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새삼 한국어와 한글이 더 소중하고 고마워집니다.



하지은 문화방송 아나운서국 부장

반포 570돌을 맞은 우리의 한글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자이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 우수성을 더욱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다듬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립국어원과 함께 방송 언어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한 이래 <우리말 나들이> 특집 등 여러 기획을 통해 청소년 언어 순화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각종 한글 및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올바른 언어문화 정립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길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소통의 단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언어는 사고의 틀이자 문화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글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되새겨 봅니다.



정미선 서울방송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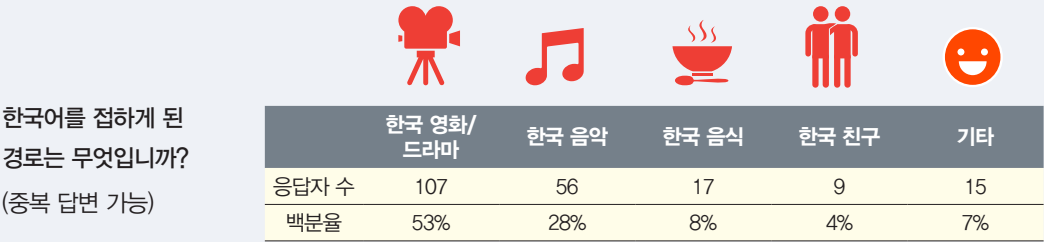
570돌을 맞이한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막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다섯 살, 여섯 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우리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친근한 글자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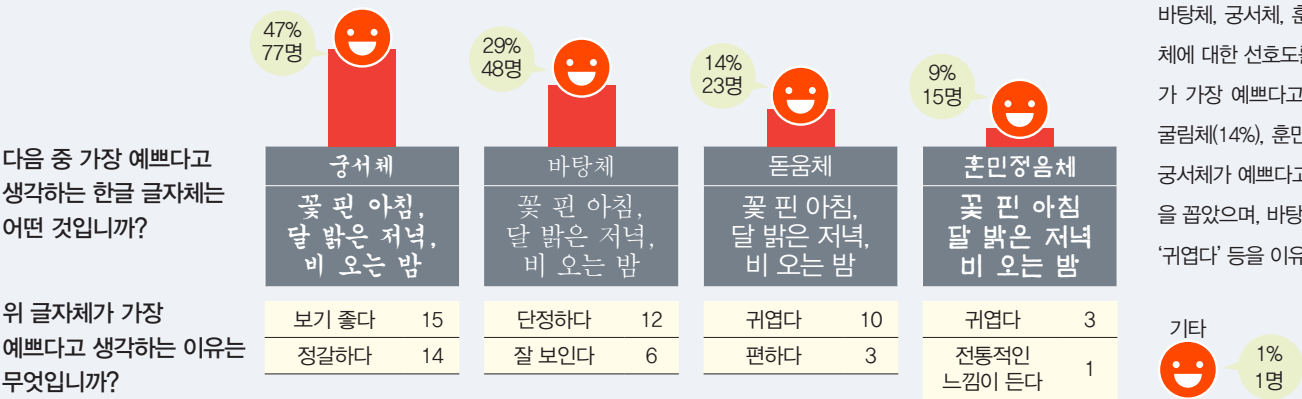
한글은 전 세계에서 습득하기 가장 쉬운 문자라고 하지요. 누구라도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한글이야말로 위대한 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에스비에스 아나운서들은 소중한 우리말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글의 위대한 정신이 널리 알려지기 바라며 570돌 한글날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경로로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으며,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28%가 한국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접했다고 답하여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한국 문화가 한국과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한국 음식(8%), 한국 친구(4%)를 통해 한국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바탕체, 궁서체, 훈민정음체, 돋움체 등 대표적인 한글 서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궁서체가 가장 예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바탕체(29%), 굴림체(14%), 훈민정음체(9%)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궁서체가 예쁘다고 답한 이유로 '보기 좋다', '정갈하다' 등을 꼽았으며, 바탕체는 '단정하다', 굴림체와 훈민정음체는 '귀엽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한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쉽다	41
	쓰기 편하다	24
	간편하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8
	재미있다	7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한글의 장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쉽다'를 한글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밖에 '쓰기 편하다', '간편하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재미있다' 등이 뒤를 이었으며, '소리를 듣고 적기 편하다', '획순이 적다'와 같은 응답도 있었다.

타일러에게 물었습니다

타일러 라시(Tyler Rasch)는 미국 출생으로 시카고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외국인으로 유명하며, 현재 세계자연기금 홍보 대사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보다 더 명쾌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한국과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첫인상이 궁금합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건 버몬트에서 기숙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까?” 하면서 ‘타일러’라고 알려 줬어요. 대학교 1~2학년 여름 방학 때 서점에서 한국어에 대한 책을 사서 한국말을 처음으로 맛보았어요. 한글에 매력을 느껴서 재미있게 독학하다가 2학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 정식으로 수업을 듣기로 했지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국의 미가 한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도형적인 것과 잘 정리된, 깔끔한 느낌의 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즉, 한글이 한국을 대표하는 열과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글이 인기라고 합니다. 한글이 쓰인 셔츠를 입기도 하고,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도 늘었는데, 이러한 인기 요인을 한글의 기능적·조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글은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도형적이면서도 한자보다 더 단적이라서 창의적으로 갖다 쓰기에 굉장히 좋고 보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아름다움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한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한글을 좋아하게 된 건지…….

한글은 다른 여러 음소 문자와 달리 모아쓰기를 하는데, 쓰기에 어색하지는 않았나요? 모아쓰기를 해 보고 느꼈던 장단점이 있을까요?

모아쓰기가 한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모아쓰기 덕분에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서 언어적인 정보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 준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알고 나면 그 나라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죠. 한국어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한국은 그저 먼 곳이었을 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도상의 한국 외에는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를 통해서 아시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눈뜬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면서 겪은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등도 그러한 일화들 중 하나일 테고요.

방송하기 전에 통화할 때는 교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고는 ‘백인이었구나!’ 하고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예전보다 무척 많아졌는데도 아직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드물구나 싶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잘했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나에게 한국의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한국 생활 중 조언이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역시 한국어를 공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희소성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5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 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 정신을 계승하고자,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 융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의 공적을 소개한다.

한국 문화 부문 남미 최대 규모의 '이베로아메리카 국제연극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양삼일 이사장

양삼일 이사장은 1997년부터 남미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베로아메리카 국제연극제'의 아시아 프로그램인 '올라 아시아(HOLA ASIA)'를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해 왔다. 또한 보고타 국제 도서전 한국관 설치와 아시아 포럼 개최, 보고타 세종학당 운영, 쿠바 국제공연예술제에서의 한국 연극 소개 등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국제 협력·봉사 부문 요셉의원

'노숙인의 아버지' 고(故) 선우경식 원장이 세운 요셉의원은 1987년 문을 연 자선 의료 기관으로서, 노숙자와 행려자, 외국인 근로자 등 가난한 환자 60여만 명의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 왔다. 2013년부터는 필리핀에도 요셉의원을 세워 무료로 질병을 치료하고,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등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예술 부문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소울 해바라기>를 창작한 배정혜 전 예술 감독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 감독은 <우리도시>와 <처용>, <춤춘향>, <소울 해바라기>, <코리아환타지> 등 다양한 창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춤의 창작 영역을 확대해 왔다. 또한 22년간 국립국악원 상임 안무자와 국립무용단 예술 감독 등 우리나라 대표 직업 무용단의 수장을 거치면서 무용의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 무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문화다양성 부문 뉴욕 최초 한인 화랑을 설립한 이숙녀 대표

이숙녀 대표는 1976년 뉴욕에 한국 화랑을 설립하여 40여 년간 운영해 오면서 이대원과 김환기, 황규백 등 한인 미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미국 미술계에 적극 소개했다. 2003년에는 비영리 알 재단(AHL Foundation)을 설립하여 한인 작가들의 미국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포 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올해의 한글 발전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10인을 한글 발전 유공자로 포상하였다. 그분들의 공적을 소개한다.

옥관문화훈장 (故)서정수 (前)한양대학교 명예 교수

서정수 선생은 <우리말 전산 용어 사전> 간행을 통해 정보화 시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대중서를 저술함으로써 한글 발전에 기여하였다. 기록 영화 '한글로 세계로'를 통해 한글의 제자 원리를 전 세계에 알렸다.



화관문화훈장 이기용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

이기용 교수는 언어 이론에 몬테규 형식 의미론 및 전산 의미론을 도입·연구하여 한국 언어학계의 위상을 높이고 국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넓혔다. 또한 국어 정보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어 정보화에 이바지하였다.



문화포장 두르소 빈첸차 이탈리아 베니스 카 포스카리대학교 교수

두르소 빈첸차 교수는 18년간 베니스 카 포스카리대학교에서 국문학과 한글의 역사를 교육했으며, 이탈리아 최초로 세종학당을 유치하여 한국 강좌를 개설하는 등 한국학의 기초를 수립하고 한국 문화 및 한국어의 보급 확산을 위해 헌신하였다.



문화포장 장바오유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장바오유 교수는 한국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한국어 교과서, 사전, 저서 등을 간행하는 등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였다. 또한 중국 한국어 교육 연구 학회 회장, 중국 조선어 학회 부회장으로서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에 공헌하였다.



근정포장 옥철영 울산대학교 교수

옥철영 교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반으로 다의어 수준의 어휘 지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21세기 세종 계획에 참여하여 언어 처리 도구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한국어 형태소·동형 이외에 동시 분석 시스템을 개발,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등 한글 정보화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 북미 한국어 교육자 협회

북미 한국어 교육자 협회는 1994년 설립된 이래 한국어 관련 학술 대회 개최, 학술 발표 지원 등의 활동으로 한국어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문 학술지 발간, 한국어 교육 지침서 발간, 우수 논문상 제정·운영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파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 임엘비라 러시아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수

임엘비라 교수는 19년간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으로 한국어 보급에 헌신하였다. 한국어 교사 연수,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문화 경시대회, 케이팝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사할린 주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데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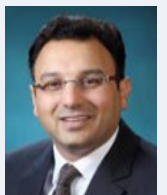
국무총리표창 오동춘 (前)한글 학회 감사

오동춘 감사는 1975년부터 2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 회관에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지도하는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궁이나 거리에서 한글 사랑 계몽 운동을 펼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국어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글 발전에 헌신하였다.



국무총리표창 하삼 카다와르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문화원장

하삼 카다와르디 원장은 한·사우디 보건부 협약 연수의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 문화 홍보 영상 제작·배포,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학회 개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 문화 교류에 공헌하였다.



국무총리표창 문경시

문경시는 아리랑 노랫말 일만여 수를 수집, 선별하여 <서세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 도록을 제작하는 등 한글 보급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글 교실 운영, 문경 새재 전국 휘호 대회, 문경 한글 문학집 발간 등 다양한 한글 사업을 전개하여 한글 진흥에 공헌하였다.





미국 엘에이 공립 도서관에서 만나는 우리말, 우리글

신재원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연중 화창한 날씨로 유명한 미국 서부의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공식 언어인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엘에이 카운티(LA County)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수는 총 3천5백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한국 출신은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엘에이에서는 한국어로 된 간판 또는 안내문을 보거나 한국말을 듣는 일이 잦다. 그중 엘에이 공립 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총 72개의 분관에 6백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엘에이 공립 도서관은 현재 약 11,000권의 한국어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평균 5백에서 6백 권 사이의 한국어 도서를 매년 새로 구입한다. 크고 작은 규모의 기증도 한국어 도서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엘에이 공립 도서관에서는 한국어로 된 책뿐만이 아닌 의외의 공간에서도 반가운 우리말을 찾아볼 수 있다. 엘에이 공립 도서관의 본부 역할을 하는 '중앙 도서관(Central Library)'의 담장과 정원이 바로 그곳인데 여기서 한국어는 엘에이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는 이들을



중앙 도서관 정원 내 계단 중 일부

맞이한다. 찾길과 도서관 입구 사이에 자리한 정원 속 계단은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히브리어, 숫자, 음표 등 스무 개가 넘는 언어와 기호 체계들로 층층이 장식되어 있다. 각 언어를 대표할 만한 문장들이 선택되어 새겨졌다고 하며 한국어가 적힌 계단에서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통해 한글 창제 시기의 한국어를 살펴볼 수 있다.

계단을 올라 도서관의 왼쪽 모퉁이를 돌면 이번에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익숙한 한국어 문구와 마주하게 된다. 도서관의 북쪽 입구를 둘러싼 이 담장은 1993년에 완성된 '리터러트 펜스(Literate Fence)'라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히브리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가 담장에 한 칸씩 쓰여 있다.



공공 미술 작품 '더 리터러트 펜스(The Literate Fence)' 중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한국 음식이 먹고 싶거나 우리 말소리마저 그리울 때가 있다. 로스앤젤레스를 여행 중이라면 코리아타운에서의 따끈한 한 끼도 좋지만 엘에이 공립 도서관에 들러 보는 것도 좋겠다. 향수를 달래 주는 우리말은 물론, 이곳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 글도 짧게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에 마음이 없을 수 있나요 간체자를 위한 변

윤기원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중국 대륙에서는 간체자를 사용한다. 간체자란 "중국의 문자 개혁에 따라 자형(字形)을 간략하게 고친 한자로, '雲'을 '云'으로 쓰는 따위"를 말한다. 간체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쓰기 편리하다는 것이다. 번체자로 쓸 때에는 열 번이 넘는 획을 그어야 하는 만(萬) 자를 간체자로 쓰면 3획(万)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렇게 획을 바꾸고 줄여 만든 간체자가 너무 쉬워진 것은 아닌지, 몇 개의 한자에 대하여 그 본 뜻을 되새겨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亲不见, 爱无心(친부젠, 아이우신)" '친한데 볼 수 없고, 사랑하는데 마음이 없다.' '친애하다'의 한자 '친애(親愛)'를 각각 떼어 번체자와 간체자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번체자의 일부가 간체자에서는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데(親) 보거나 만나는(見) 것이 허락되지 않고, 사랑하는(愛) 데에는 마음(心)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소 빠진 찐빵이 아니냐는 식의 간체자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이 '친애(親愛)'라는 두 글자가 있다.

이와 같은 간체·번체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올 초 중국 영화감독 펑샤오강(馮小剛)의 발언으로 다시 화제가 되었다. 펑샤오강은 의미에 따라 몇몇 번체자들을 중국 대륙에도 들여와 쓰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고, 그게 정 어렵다면 '친애(親愛)'와 같은 글자들 몇 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번체자는 글자 자체에 필요한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 전통문화 계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애(親愛)'를 두고 감론을박을 벌이는 동안, 중국의 한자 전문가들도 의견을 피력했다. 간체자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체자를 도 넘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다. 전문가들은 글자 하나에서 지나치게 심오한 이치를 찾는 것보다, 간체자와 같은 쉬운 글자가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효용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번체자는 글자만 보아도 의미를 짐작할 수 있지만 획이 많아지는 탓에 사용이 불편하고, 간체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신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체자를 중국 대륙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효용성을 중시했기 때문이고, 홍콩·타이완 등지에서 번체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에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 어떤 모습을 하든 사랑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기 외국어로 살펴보는 칠레의 과거와 현재

조성훈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칠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학교에서 의무 교육으로 가르치는 영어이고, 그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는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독일어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들이다.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칠레 사이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19세기 이전부터 칠레와 교류하며 많은 영향을 주었던 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부터 살펴보자. 프랑스어는 칠레 사회에 가장 먼저 강력한 영향을 끼친 외국어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가가 프랑스 계열로 바뀌면서 스페인 제국의 일부였던 칠레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영향은 19세기 초에 세워진 칠레 공화국에도 계속되었는데, 프랑스어가 스페인어와 가까운 라틴어 계통인 것도 프랑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던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독일어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독일어는 스페인어와 문법, 낱말이 많이 다르고, 어렵고 딱딱한 언어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그 때문인지 프랑스어나 포르투갈어에 비해 배우는 인구가 훨씬 적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어는 칠레 국립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어, 프랑스어와 함께 선택 가능한

외국어 중 하나이다.

칠레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보았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영어의 힘이 현저하게 커졌다는 점이다. 칠레 문화예술부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18.2%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중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외국어로 영어를 꼽았다.

그렇다면 칠레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배우고 구사하는 언어인 포르투갈어는 어떨까? 포르투갈어의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브라질의 힘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많은 칠레 사람들이 포르투갈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인어와 비슷하기까지 하다.

그 밖에 정확히 외국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언어가 있다. 칠레 땅의 선주민족인 마푸체 민족의 언어 마푸둥곤(Mapudungun)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보다는 자국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최근 다른 중남미 나라들과 겪는 갈등, 중남미 전역에서 부는 선주민족 문화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마푸체 족의 언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는 그 나라가 처한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런 점을 생각하며 칠레의 외국어 교육 상황을 살펴 피다 보면 절로 묻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고 말이다.

칠레 국민의 외국어 구사 가능 여부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의 종류

외국어 구사 가능 여부	비율(단수 응답)	순위	외국어	비율(복수 응답)
할 수 있다	18.2%	1위	영어	92.5%
할 수 없다	81.8%	2위	포르투갈어	8.2%
		3위	프랑스어	5.7%

(자료 출처: 칠레 문화 예술부)



아줌마 좋아요! 프랑스에서 만난 한글

김민채 국립국어원 국외통신원

요즘 들어 한국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만 해도 동양인이면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불어로)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묻거나, 한국인이 라고 했을 때 한국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2015~2016년 한불 교류의 해를 맞아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 광고 속에 등장하는 한글을 통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글의 매력에 대해 살펴보자.

2014년 여름부터 프랑스 전력 공사는 ‘엘렉트릭(Électric)’라 불리는 연속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프랑스 전력 공사와 관련된 짙막한 이야기 열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광고는 프랑스의 두 배우 에리크 쥐도르(Eric Judor, 배우 겸 감독)와 아피드 베나마르(Hafid F. Benamar, 배우 겸 시나리오 작가)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광고에 등장하는 아피드 베나마르의 의상이 한국인의 눈길을 끌었다.

아피드 베나마르는 한글로 “오빠”, “아직 한 잔 남았다”, “아줌마 좋아요”, “오구 오구”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다. 알고 보니 이 배우는 한국 영화, 한국 노래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소위 ‘한국 팬’으로, 파리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 연속 광고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광고에 속하는데, 광고에 한글이 쓰인 티셔츠가 등장하여 한글을 모르는 프랑스인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보는 한글의 매력은 무엇일까? 파리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프랑스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았다.

파리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오렐리(Auréliе) 씨는 한글의 주된 매력은 배우기 쉽다는 점이라며, 배워야 할 철자 수도 많지 않고 음절을 구성하는 법칙도 간단한 편이라고 답했다. 또 카트린(Catherine) 씨는 한글은 다른 서양의

문자와 달라서 이색적이라며, 한글 서예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파리 세종학당 중급 반을 수강하고 있는 클로에(Chloé) 씨는 “한글은 쓰기가 아주 쉬웠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는 많지 않아서, 마치 비밀 문자 같아요. 한글 쓰기가 재미있고 좋습니다. 서예도 참 예쁘고, 서예 속에 담긴 철학도 아주 재미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라고 유창하게 한국어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프랑스 학생들은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비해 배우기도 쉽고 읽기도 쉽다며,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한글의 매력으로 꼽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한글의 매력에 점점 빠지길 바라 본다.



순우리말로 지은 길 이름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정말 폭 쉬었어, 후후.
또 언제 쉬는 날이 있나?
앗! 올해 한글날이 일요일이잖아. 내 휴일...

응? 너 지금 한글날을
단순히 휴일이라고
한 거야?

한글이 중요하다는 건 나도 안다고,
그래도 이왕이면 국경일이
평일이어서 쉬면 더 좋잖아.

그렇긴 하지만,
신다는 생각 전에
그 뜻을 헤아려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한글날은 세종 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걸 기념하는 날 아니야?

맞아, 그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 건 언제일까?

국경일? 음... 광복 이후?

거 봐. 한글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

음, 죄송해요,
세종 대왕님.

한글날이 처음부터 한글날로 불린 건 아니었어.
1926년 음력 9월 29일에 '가갸날'이 제정됐는데,
1928년에 '한글날'로 이름이 바뀌었대.

'가갸날'도 좋은데?
가갸거겨고고...

1926년 가갸날 → 1928년 한글날

광복 후에 지금의 양력 10월 9일이 됐고
2005년에 국경일로 지정된 거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그때부터 공휴일이었어?

10월 9일

아니야. 1946년에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
한글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어.

다시 공휴일이
된 지는
얼마 안 됐구나.

그럼 한글날을 기념하며 오늘은
순우리말로 된 길 이름을 찾아보자.

좋아, 이런 게 진정한
한글 사랑이지.

전국 각지에 우리말 길 이름이 많지만,
나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애움길'이 마음에 들어.

왜? 무슨 뜻인데?

지름길은 알지?
가깝게 걸러 통하는 길 말이야.
그 반대로 빙 둘러 가는 길을
'애움길'이라고 해.

애움길, 조금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건가 봐.

대구 수성구에도 예쁜 우리말 길 이름이 있어.
예부터 찬 샘물이 솟아났다고 해서 '찬샘길'이래.

까,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평택에는 귀여운 '노루덩이길'이 있어.

킁킁, '노루궁둥이길'에서 '궁'을 빼 먹은 건가?

영동하긴.
지형이 노루 목처럼
잘록해서라고도 하고
노루들이 자주 나와서
붙여졌다고도 해.

안녕?

순우리말로 된 길 이름은
단순하면서 기억하기도 쉽다.

암, 그게 순우리말의 매력이지.

한글 맞춤법 차례차례 알아보기

실력이 아무리 없을지언정 너에게 질소나

- 첫음절 끝소리가 'ㄹ'인 어미 뒤에 오는 자음의 표기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으)ㄹ거나	-(으)ㄹ꺼나	-(으)ㄹ걸	-(으)ㄹ꼐
-(으)ㄹ게	-(으)ㄹ께	-(으)ㄹ세	-(으)ㄹ쎄
-(으)ㄹ세라	-(으)ㄹ쎄라	-(으)ㄹ수록	-(으)ㄹ썀록
-(으)ㄹ시	-(으)ㄹ씨	-(으)ㄹ지	-(으)ㄹ찌
-(으)ㄹ지나라	-(으)ㄹ찌나라	-(으)ㄹ지라도	-(으)ㄹ찌라도
-(으)ㄹ지어다	-(으)ㄹ찌어다	-(으)ㄹ지언정	-(으)ㄹ찌언정
-(으)ㄹ진대	-(으)ㄹ찐대	-(으)ㄹ진저	-(으)ㄹ찐저
-을시다	-을씨다		

이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어미들은 모두 첫음절의 끝소리가 'ㄹ'인 어미들이는데, 이 'ㄹ' 뒤에 나오는 자음이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말고 예사소리로 적으라는 뜻이다.

'아홉 시까지 갖다 놓을 것'에서 '것'은 [꺼]으로 발음하고, '한 달 동안 머물 집'에서 '집'은 [찌]으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만 표기는 예사소리 글자를 그대로 쓰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으)ㄹ걸, -(으)ㄹ께, -(으)ㄹ수록, -(으)ㄹ지라도……' 등과 같은 어미 안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으)ㄹ'은 본래 관형사형 어미이고 '것, 수록, 지' 따위는 본래 의존 명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갈 게, *연습할 걸, *호를 수록처럼 띄어 써야 할 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두 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뜻과 기능을 가진 하나의 어미가 되어 지금은 '갈게, 연습할걸, 호를수록'과 같이 붙여 쓰게 된 것이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ㄹ까?	-(으)리까?
-(으)ㄹ꼬?	-(으)ㄹ쏘냐?
-(스)ㄴ니까?	

'-(으)ㄹ까'나 '-(으)ㄹ쏘냐' 등도 기원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의 결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중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은 어원 의식이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같은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중에서 '-(스)ㄴ니까, -더이까' 같은 어미에서는 된소리로 적으면서 '-(으)ㄹ'로 시작하는 어미에서만 예사소리로 적으면 괜히 표기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으)ㄹ까, -(으)ㄹ꼬, -(으)리까, -(으)ㄹ쏘냐' 등은 된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을 따로 둔 것이다. 단, '어디로 갈거나'에서 'ㄹ거나'도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긴 하지만, 이때는 *갈꺼나와 같이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ㄹ거나'의 경우에는 의존 명사 '것'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기도 하고, 형태적으로도 다른 의문형 어미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설명은 좀 복잡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다.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들은 빼고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들만 놓고 보면,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지금 갈까?), '-(스)ㄴ니까'(어디 가십니까?) 정도만 빼고는 어미에 된소리 글자가 쓰이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갈까?'를 *지금 갈가?로 적는다거나 '언제 가십니까?'를 *언제 가십니까?로 적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헛갈린다 싶으면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대체로 바른 표기가 된다.

소리가 예쁜 우리말

호빗호빗

깊고 좁은 틈이나 구멍 속을 잇따라
조금씩 자꾸 갇거나 돌려 파내는 모양

마룻구멍을
호빗호빗
파자 찬바람이 들어왔다.

발맘발맘

한 발씩 또는 한 걸음씩 길이나 거리를
가늠하며 걷는 모양

우리는
발맘발맘
걸었다.

우리말 길라잡이

우리말 바로 쓰기

'-대'와 '-데'

"신부가 정말 **예쁘대/예쁘데.**"

둘 중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에게 들은 말을 전할 때 씁니다. 즉 신부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신부가 예쁘다는 얘기를 전할 땐 "**신부가 예쁘대.**"라고 할 수 있지요.



한편 '-데'는 '~더라'의 의미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말할 때 씁니다. 즉 '신부를 직접 보니 예쁘더라.'의 뜻일 때는 "**신부가 예쁘데.**"라고 한답니다.



네 여자 친구 정말 예쁘데. 혹시 여동생 없대?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http://news.korean.go.kr>)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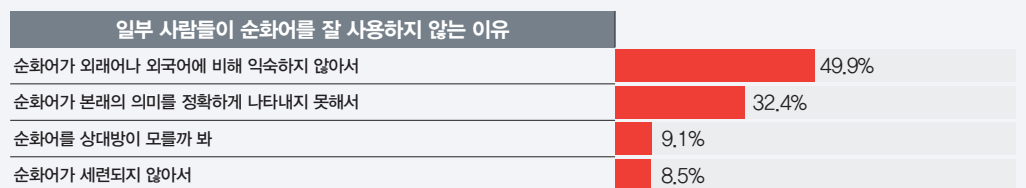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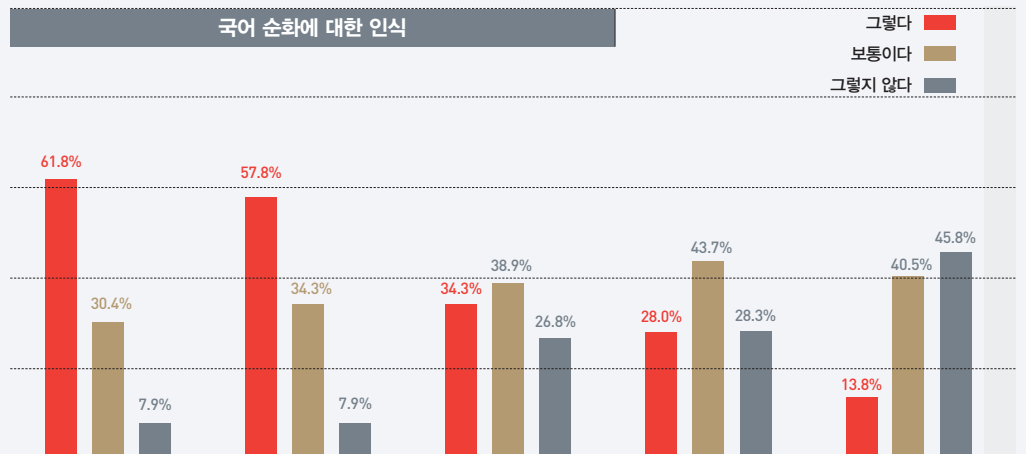
순화어 사용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조사 결과 ‘모든 외국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순화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이보다 낮게 나타나,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순화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순화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함에도 사람들이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순화어가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화 시대에 사는 만큼 앞으로 외래어와 외국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래어·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소중하고 정감 있는 우리말을 점점 잊게 될지도 모른다. 순화어를 처음부터 익숙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친숙해지지 않을까? 한때 많이 쓰였던 외국어 ‘리플(←reply)’ 대신 다듬은 말 ‘댓글’이, ‘네티즌(netizen)’ 대신 ‘누리꾼’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례일 것이다.

‘승강기’와 ‘엘리베이터’, 어느 말이 더 익숙한가?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언어 의식, 언어 사용 실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전국 성인 남녀(20대~60대) 5,000명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외래어와 외국어를 다듬은 ‘순화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다듬은 우리말 알아보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문인, 언론인, 학자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말다듬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동안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모두 32개의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었는데 그중 국어 생활에서 요긴하게 쓸 만한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대상어	다듬은 말
데모데이	시연회
러닝 개런티	휴행 보수
버스킹	거리 공연
에어 와셔	공기 세척기
젠트리피케이션	동지 내몰림
컴필레이션	선집

먼저 ‘어떤 계획을 실시할 예정인 날 이전에 먼저 행사를 진행하는 날’을 뜻하는 ‘데모데이(demoday)’는 ‘시연회’로 다듬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날짜를 의미하는 ‘데이’보다는 시험적으로 선보인다는 의미의 ‘데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인 ‘제품 시연회’ 등과 견주어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에서 참여하는 감독이나 배우, 제작진들이 출연료 외에 흥행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가리키는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는 ‘휴행 보수’로 바꾸어 쓸 수 있다. 한편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이르는 ‘버스킹(busking)’은 다듬은 말 ‘거리 공연’을 쓰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여과 기능을 하는 물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에어 와셔(air washer)’는 물로 공기를 씻어 내는 기계라는 의미를 살려 ‘공기 세척기’로 다

듬어 쓸 수 있다. 그리고 ‘구도심이 변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동지 내몰림’으로 바꾸어 쓰면 의미가 더욱 쉽게 와 닿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원래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말로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원래의 의미와 같이 ‘주택 고 급화’와 같은 중립적인 말로 다듬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쓰임을 고려하여 ‘동지 내몰림’으로 다듬었다. 또한 ‘여러 책이나 영화, 음반에서 내용을 딴 모음’을 가리키는 ‘컴필레이션(compilation)’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작품 가운데서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작품을 모아 엮은 것’을 뜻하는 말인 ‘선집’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오늘날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새로운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외국어나 외래어만 쓰기보다는 처음엔 다소 어색하더라도 다듬어진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외래어와 외국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 하나일 것이다.

도전하세요!

제46대 달인은 당신입니다

잔칫날, 600회: 2016년 1월 11일

〈우리말 겨루기〉는 2003년 방송을 시작한 한국방송의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우리말 달인은 제45대, 왕중왕은 제5대까지 탄생! 13년 동안 달인이 제45대뿐이라는 건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희소가치에 도전자에게는 간절함이 더해지고 시청자에게는 진한 감동이 전해진다.

지난 600회는 우리말 달인 중의 달인, 왕중왕들이 제1대 대왕 자리를 놓고 겨루는 한판이자 30명의 역대 출연자가 함께하는 잔치로 꾸며졌다. 초창기 출연자부터 최근의 우리말 달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짜야짜야 마을의 한국어 교사 정덕영 씨(127회 출연) 등이 참여하여 풍성한 자리였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박준록 씨는 “10년 전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우승 후 자신감이 생겨 적극적인 삶을 살 용기가 났고 결국 인생이 달라졌다. 평범한 주부가 이룬 기적! 그래서 많은 분께서 응원해 주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퀴즈계의 김연아로 불리는 그녀는 〈우리말 겨루기〉를 시작으로 퀴즈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한 40대 주부 도전자다. 이처럼 〈우리말 겨루기〉는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 겨루기〉가 오랜 시간 버텨 온 무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화제의 동영상, 612회: 지오디 박준형, 갯세븐 잭슨, 아비가일, 로미나 편

‘이러쿵저러쿵’을 익살스럽게 이르는 말로 ‘음식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어○○○○○ 말이 많다’처럼 쓰이는 이 말은?

박준형: 어리병저리병?

아비가일: 어리버리하게? 준형 오빠가 말한 느낌 같은데…….

박준형: 어찌고저찌고!

진행자: 박준형 씨, 정답입니다!

의성어와 의태어 문제는 외국인들이 재밌어하면서도 어려워한다. 정답을 맞힌 박준형 씨가 아는 한국어는 어린 시절 할머니, 삼촌, 어머니가 쓰는 말을 따라 하면서 습득한 것이 전부였다.

미국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 한국에 왔을 때 동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한다. 사투리와 일본말뿐 아니라, 요새말과 다른 옛날 어휘들을 뒤섞어 썼기 때문이다. “태우야, 층층다리(계단) 옆에 요비링(초인종) 있어.” 꼴찌를 할까 봐 걱정이 많았던 박준형, 우승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애써 이뤄 낸 역전 승은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우리말 겨루기 **박혜령** 작가

케이비에스엔 〈아이리브베이스볼〉, 서울방송 〈에스비에스 킷클럽〉, 문화방송 〈생방송 금요와이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비가일이 남긴 말 또한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있는데도 대화에 영어를 섞어 쓴다.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빌딩, 모임이라는 단어 대신 미팅이라고 한다. 한국어가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날 방송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서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대하는 도전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잭슨은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서툴지만 안간힘을 쓰고 한 문제라도 맞으면 우승이라도 한 듯 기뻐한다. 외국에서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한글과 한국어를 즐겁게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도전하세요! 제46대 달인은 당신입니다

4명의 도전자가 얹치락뒤치락 겨루기를 하면 시청자는 자기도 모르게 응원의 대상을 정한다. “아, 오늘은 저 사람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제작진은 예심 면접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싶은 사람을 합격시킨다. 〈우리말 겨루기〉예선은 과연 어떤 사람이 통과할까? 대단한 사연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드러낼 이야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제 아줌마 이력에 한 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각오도 좋다.

“저는 쌍둥이들 양팔에 한 명씩 안고 모유 수유를 합니다.” 나만의 일상도 좋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응원하고 싶은 도전자가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이길 바란다.

오늘도 무사히!

〈우리말 겨루기〉작가들은 한 단어를 출제하기 위해서 때론 수십 수백 개의 단어를 검토하고 중복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최소 세 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 문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난이도를 조절한 후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는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녹화 때는 신경이 곤두선다.

“〈우리말 겨루기〉가 〈전국노래자랑〉처럼 오래 사랑받길…….” 이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는 시청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면 녹화의 시작과 끝에 작가들이 나누는 다짐의 말은 바로 이것,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 말이 바르게, 재밌게 전달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우리말

국립국어원은 가나다전화, 온라인가나다,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문제 전반에 대한 답변과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가나다전화: 1599-9979 (평일 9시~18시)

· 온라인가나다: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묻고 답하기 → ‘온라인가나다’

· 카카오톡: @우리말365

깊은 {생각}하다/생각하다

‘깊은 생각 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하다’가 하나의 동사로 있지만, 앞의 관형어 ‘깊은’이 동사를 꾸밀 수는 없으므로 ‘생각하다’를 명사 ‘생각’과 동사 ‘하다’로 분리해 ‘깊은 생각 하다’로 띄어 쓰는 것입니다.

깊숙이/깊숙히

‘깊숙이’가 바른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습니다. ‘깊숙이’의 마지막 음절은 [이]로만 발음되므로 ‘깊숙히’가 아니라 ‘깊숙이’로 적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성공하길 {바라/바래}.

“아무쪼록 성공하길 바라.”와 같이 적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서술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가 어울린 경우이므로 ‘바라’와 같이 준 대로 적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있으시겠습니다}.

간접 존대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말씀’을 높여 그 서술어를 ‘있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 참 {웃기다/웃긴다}.

“그 사람 참 웃긴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웃기다’는 동사 ‘웃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로서, ‘웃긴다’로 활용해야 어법에 맞습니다. 흔히 ‘웃기다’를 ‘우습다’와 같은 형용사로 착각해 “그 사람 참 웃기다.”와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국민 참여형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이 탄생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의 낱말은 모두 몇 개일까?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와 ‘국어’는 어디까지인지부터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재외 교포 3세가 사용하는 어휘하면서도 영어가 섞인 말은 국어인가 아닌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낱말이 모두 국어의 낱말인가 아닌가 등에 대해서 판단이 서로 다를 것이다. 또한 말이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쓰던 말이 점점 잊히기도 하고 새말이 속속 탄생하기도 하므로 어떤 언어의 낱말을 모두 헤아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꼭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말의 낱말을 최대한 모아 보려는 시도조차 여태껏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낱말을 모으는 창고로는 ‘사전’이 있었으나, 소수의 전문가가 규범성(가치성) 또는 상품성까지 감안해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예전의 국어사전은 아무리 대사전이라 할지라도 규모와 시의성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낱말의 총집합이라고 불리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가운데 눈부신 발전으로 정보 통신 분야가 핵심이 되었다. 그 기술을 이용하여 여기저기서 모은 낱말을 모두 합하고 편찬자를 한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구적으로 갱신되고 더한다면 낱말의 총집합에 가까운 사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전이라면 뜻풀이 하나하나가 더욱 내실 있게 다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현한 것이 10월 5일 개통한 《우리말샘》이다.

《우리말샘》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새 낱말 등록이나 기존의 낱말 정보 수정에 참여할 수 있다. 출발하면서 국립국어원이 많은 공을 들여 100만

여 항목을 넣어 두었는데, 여기에는 일반어, 전문어, 지역어, 북한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 등이 망라되었다. 낱말의 의미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어휘 지도’ 기능도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과 검색 결과의 내려받기 기능도 있다. 《우리말샘》이 문화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집단 지성으로 만들고 다듬는 사전이라서 저작물로서의 사전적 정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 일부를 가져 뺐아서 특수한 사전을 만들어 출판해도 되고, 휴대 기기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된다.

막 출발한 《우리말샘》의 성패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전에 참여하여 양과 질을 끊임없이 드높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 국어가 더 정확히, 더 품격 있게 정리되기를, 이로써 매끄러운 소통 문화가 정착되어 온 국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우리말샘》 찾아가기

- 주요 들머리 사이트(포털 사이트)에서 ‘우리말샘’으로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사전·국어 지식 → 사전 → ‘우리말샘 바로 가기’
- <http://opendict.korean.go.kr>



수어로 하나 된 사람들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2016 국제 학술 대회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9월 7일(수)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독일, 미국, 중국(홍콩), 영국, 네덜란드에서 온 수어 관련 전문가들이 각국의 수어 사용과 농문화, 수어 교육 현황, 수어 관련 정책, 수어 연구와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수화언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크리스티안 라트만(Christian Rathmann)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농인의 수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아동의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법을 제언했다.

1부 발표를 맡은 미국 캘러멧 대학교의 벤저민 베이한(Benjamin Bahan) 교수는 ‘감각과 문화’를 주제로 청인과 농인의 의사소통과 문화를 비교하면서, 청인과 농인은 동등하게 인정받으며 함께 나아가야 할 관계임을 강조했다.

2부 첫 발표를 맡은 중국 홍콩 중문 대학교의 필릭스 시(Felix Sze) 교수는 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수어 교육의 중요성과, 수어와 구어 간 이중 언어 교육과 통합 교육이 수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통합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된 농아동의 인터뷰 영상 자료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국립국어원의 정희원 어문연구실장은 2016년에 제정·공포된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관련 연구 및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3부에서는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애덤 켐브리(Adam Schembri) 교수가 영국 수어 말뭉치 사업의 방법론을 짚어 보고 자료 수집 방법, 주석과 번역 작업, 수어

말뭉치 자료의 접근 대상을 전문가 집단과 일반 사용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네덜란드 랏바우트 대학교의 오노 크라스보른(Onno Crasborn) 교수는 말뭉치 분석 도구 활용법을 안내하고, 수어 말뭉치 분석 결과를 공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가 발표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수어 연구와 농문화,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제 학술 대회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수어와 농문화를 이해하고, 수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언어의 장벽이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 꿈터’ 10월 17일 개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국립국어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말 체험 공간인 ‘우리말 꿈터’를 10월 17일 개관하고 18일부터 공개한다. 약 260㎡ 넓이로 국어원 1층에 새로 조성한 ‘우리말 꿈터’를 통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이 우리말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알아보고, 자신과 주변의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 특히 중학생들에게 자유 학기제 기간 동안 좋은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코너명
(사전) 도전! 사전 탐험대	사전과 함께 놀기/십자말풀이 나만의 뜻풀이
(다양한 우리말) 출발! 우리말 여행	지혜가 반짝이는 속담 지역 방언으로 노래하기(노래방)
(언어 예절) 안녕! 우리말	언어 예절 돌아보기 마음을 담은 댓글 달기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 내 마음 가득 전하기
(소중한 우리말) 나도 우리말 지킴이!	쉽고 편한 우리말을 찾아서 국립국어원에 물어보세요 띄어쓰기 뛰어 보기(게임)

‘우리말 꿈터’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전을 주제로 한 ‘도전! 사전 탐험대’에서는 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사전을 활용해 십자말풀이를 해 보고 자신만의 낱말 뜻풀이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우리말을 주제로 한 ‘출발! 우리말 여행’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속담을 알아맞춰 보고, 지역 방언으로 개사한 노래를 작은 노래방에서 불러 보며 각 지역 방언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안녕! 우리말’은 언어 예절을 주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높임말과 인사말 바르게 고쳐 보기, 인터넷에

응원하는 댓글 달기,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엽서에 써 전하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중한 우리말을 주제로 한 ‘나도 우리말 지킴이!’에서는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보기, 우리말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띄어쓰기를 몸으로 뛰는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익혀 보기와 같은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자유 학기제 연계 문화 프로그램으로 ‘우리말 꿈터’를 찾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말 꿈터’에서는 언어 인성 프로그램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는 국립국어원이 2015년에 개발한 언어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배려와 긍정의 소통 문화를 고민해 보는 활동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강연과 문화 공연 행사를 매월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말 꿈터’ 체험은 무료이며, 체험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 국어·한국어 교육 > 우리말 꿈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예약도 가능하다.



도전! 사전 탐험대



출발! 우리말 여행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바른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만나 보세요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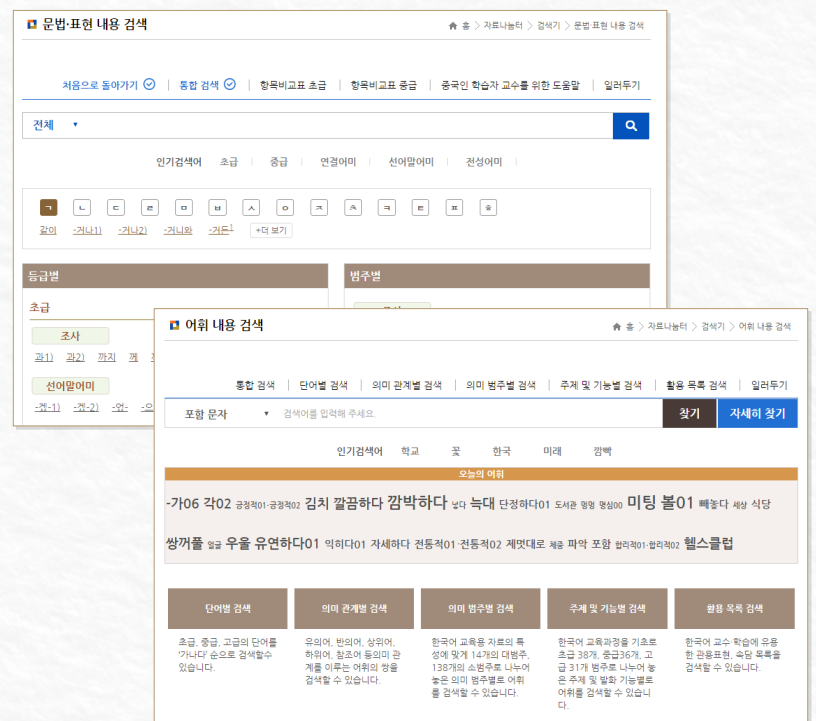
‘한국어교수학습센터’는 국내외 한국어 교원과 예비 교원에게 시·공간, 비용의 제약 없는 연수 환경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 내용’과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검색’은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초급 문법·표현 항목 92개, 중급 문법·표현 항목 113개’의 교육 내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문법·표현 항목의 의미와 용법, 해당 문법을 가르칠 때 필요한 예문,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유사 문법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한국어 교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검색’도 ‘단어별 검색, 주제 및 기능별 검색, 의미 범주별 검색’ 등을 통해 한국어 교원이 어휘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초급용 어휘 1,835개, 중급용 어휘 3,855개, 고급용 어휘 4,945개’로 총 10,635개의 어휘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 점에서도 특색이 있다. 이 두 검색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법 및 어휘 목록을 손쉽게 빠르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검색 시스템을 한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된 온라인 강좌도 개발된다고 한다.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검색 바로 알기’ 강좌는 10월 9일부터 서비스되며, ‘문법·표현 교육 내용 검색 바로 알기’ 강좌는 12월부터 개통될 계획이다. 이 두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어 문법 및 어휘 검색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국어원은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를 한국어 교원 및 예비 교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바른 한국어, 즐거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한국어 전문가를 위한 국립국어원 초청 연수회

올해 19개국 30여 명 대상으로 연수회 개최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어 교육 열기가 여전하다.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한국어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외국인 한국어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끈이 해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 문화와 한국어 보급의 선두 주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한국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이다.

국립국어원의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는 2007년부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교육’,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연수회가 열렸고, 이후 2010년부터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로 이름을 바꾸어 연수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외 한국어 교원, 한국어 전문가, 세종학당 교원을 구분하여 연 3회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부터는 한국어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이 주관하는 연수회가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두 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9년간 총 733명의 한국어 교원이 이 연수회에 참여하였고, 올해에는 19개국 30명이 연수회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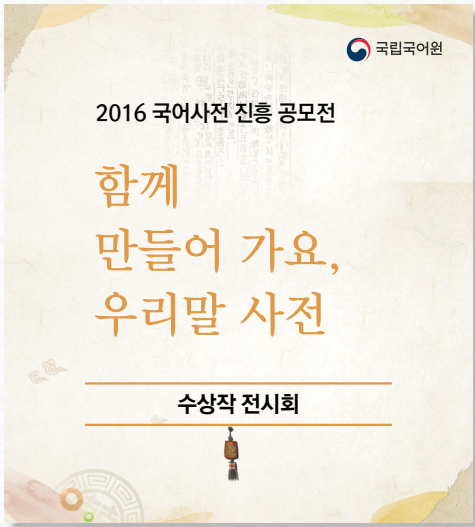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 기관(세종학당, 한국교육원 등)에 소속된 국외 한국어 교원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참여한다. 그러나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연수 참여 기회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국외 한

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는 강화된 분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임 활동을 통해 연수회 참여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가 한국어 전문가들의 실제적인 역량 강화 및 현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활발한 정보 교류의 밑거름이 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에 주최한 2016년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말 사전” 심사 결과 선정된 수상작을 ‘2016 한글문화큰잔치’ 행사의 하나로써 10월 9일(일), 광화문 광장에 전시한다.

올해는 ‘한글’, ‘미래’, ‘샘’ 등 주어진 10개의 낱말 가운데 5개를 골라 개성적으로 뜻풀이한 개인 및 단체의 작품 1,300점 중 18점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작품은 우리말의 창의적 뜻풀이가 돋보일 수 있도록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쓰여 전시된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한마당 축제 개최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제570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 한마당 축제’를 진행한다. ‘위대한 유산, 한글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0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한글박물관 잔디 마당 및 나눔 마당에서 진행된다. ‘한글 글짓기 대회’와 ‘국악 공연’을 비롯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상설 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 및 기획 특별 전시 ‘광고 언어의 힘’, ‘덕온 공주 한글 자료’와 더불어 1세대 글꼴 디자이너 최정호, 최정순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원도, 두 글씨장이 이야기’가 진행된다.

| 전시 일정 |

전시명	때	곳
광고 언어의 힘	7. 28. ~ 11. 27.	기획 전시실
1837년 가을 어느 혼례 날 - 덕온 공주 한글 자료	9. 12. ~ 12. 18.	기획 전시실
원도, 두 글씨장이 이야기	10. 5. ~ 11. 17.	별관
케이비에스 한국어 포스터 전시회	10. 4. ~ 10. 11.	별관

| 한글날 행사 일정 |

행사 내용	때	곳
전통 연희	11:00 ~ 11:20	중앙 무대
한글 글짓기 대회	11:20 ~ 12:00	잔디 마당
한글 손 편지 공모전 시상식	14:00 ~ 14:30	중앙 무대
국악 공연 ‘한글, 풍류를 만나다’	15:00 ~ 16:00	중앙 무대
체험(교육) 행사	10:00 ~ 17:00	체험 부스



| 공연 마당 |

행사 내용	때	곳
온 세상, 한글로 비추는 음악회	2016. 10. 9.(일) 19:30 ~ 21:00	광화문 광장 세종 대왕상 앞 주 무대
온 세상, 한글로 비추다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중앙 무대)
뷰티풀 코리아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중앙 무대)
관현악 연주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중앙 무대)
한글, 비보이와 만나다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중앙 무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한글, 우리 가곡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중앙 무대)
춤으로 그리는 한글, 한글로 나르샤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중앙 무대)
세종과 함께 춤을 즐기자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북측 무대)
하늘의 소리 땅의 몸짓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북측 무대)
한글날 마술 대폭발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북측 무대)
한글, 그 아름다운 올림 음악회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북측 무대)
뮤지컬 갈라 콘서트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북측 무대)
전래 동화 뮤지컬 '토끼의 재판'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세종로 공원 무대)
국악 뮤지컬 '말하는 원숭이'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세종로 공원 무대)
푸른 하늘 은하수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세종로 공원 무대)
가족 뮤지컬 '종이 아빠'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세종로 공원 무대)
책 공연 '돈 도깨비'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세종로 공원 무대)
퓨전 뮤지컬 '찰리 아저씨의 마술 공장'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세종로 공원 무대)

| 전시 마당 |

행사 내용	때	곳
한글로 전시하다	2016. 10. 8.(토) ~ 10. 9.(일)	광화문 중앙 광장
한글 도깨비 두두리 전시전	2016. 10. 8.(토) ~ 10. 9.(일)	광화문 북측 광장
세계로 뻗어 가는 한글 붓글씨 잔치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반포에서 한글까지 한글을 지키고 가꾼 28인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온 세상이 한글 자랑	2016. 10. 9.(일)	강릉 여성 문화 센터

| 참여 마당 |

행사 내용	때	곳
한글 놀이터	2016. 10. 8.(토) ~ 10. 9.(일)	광화문 중앙 광장
한글 디자인 필통 만들기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2016. 10. 9.(일)	세종 대왕 기념관
한글 자음 모음 전각 체험전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휘호 경진 대회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한글 멋글씨전 '추억의 동요'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용한 세종 블록 체험 행사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내 이름을 알리자 - 한글 액세서리 만들기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한글 가족 컵 받침 만들기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한글 마술 버블 체험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아름다운 한글 물병에 담아 가요	2016. 10. 9.(일)	광화문 광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발행인	송철의
발행일	2016년 10월 8일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54
누리집	http://www.korean.go.kr
대표 전화	02-2669-9775
가나다전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1599-9979
기 획	국립국어원
제 작	나로네트웍스 주식회사 02-335-5325

이 간행물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침표, 마침표>의 한글날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